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자크 티소, 「바리사이들을 논박하시는 그리스도」(1886~1894),
종이에 수채, 브록클린 박물관, 미국 뉴욕.

† 오늘의 전례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마르 7,1-8,14-15,21-23 참조)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손을 씻는 유대인들의 관습은 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남을 비방함으로써 의로운 사람인 척 하려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속셈을 나무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사랑의 계명을 거스르는 “위선”입니다.

제1독서 신명 4,1-2,6-8 **제2독서** 야고 1,17-18,21ㄴ-22,27 **복음** 마르 7,1-8,14-15,21-23.

입당송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신부님… 하느님께 별 받심니데이!”

문봉한 야고보 신부 | 다사본당 주임

“성모승천 대축일에 새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라.” 지난 7·8월 살을 태울 듯이 내리쬐는 폭염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였다. 그 날들은 주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마치 그것만을 위한 부속품처럼 여기고, 그것 이외에는 사치이고 불필요한 낭비에 불과했다. 목표를 향한 적념(寂念)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8월 13일 성전 바닥 돌 사이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들 사이에서 보살님이 나타났다.

“아주머니 너무 더운데 쉬면서 대충하셔도 됩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감시하듯이-

“이 성당 신부님이라예?” -놀라는 듯이-

“예. 맞습니다.” -일을 시키고 감시하는 주인처럼 좀 거만하게-

“저는 절에 댕기는데요, 신부님요 여가 성당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 같은데 정성 없이 하면 하느님께 별 받심니데이.” -정말 진심으로 단순하고 솔직하게 조금은 자랑하듯이-

“신부님…, 하느님께 별 받심니데이!”

신의 한 수다. 더워서 숨도 쉬기 어렵고 일정을 맞추려는 욕심으로 열 받는데, 해맑은 지혜가 온 몸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 별 받는단다. 정성이 복을 안겨준단다. 그 어떤 것 보다 진심어린 정성이 천국행 티켓이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마르 7,7-8) ‘입술과 사람의 규정, 마음과 계명’이라 쓰고 진심 없는 형식과 진심어린 정성으로 읽을 수 있다. 진심 없는 형식은 우리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마르 7,21-23) 그렇다면 진심어린 정성은 반대로 ‘나쁜 생각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모든 일에 진심어린 정성을 쏟으면 별 받는 두려움에서 복 받는 담대함으로 성화된다.

그 보살님의 진심어린 정성덕분인지 대축일 미사는 그야말로 축복 속에 봉헌되었고, 그 날의 기쁨은 그 동안 단 한순간도 게으르거나 무관심한 적이 없는, 다사성당 교우들의 땀과 희생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봉헌이었다. 그리고 새 성전 완공을 위한 남은 일정은 더 많은 진심어린 정성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다사 공동체, 진심어린 정성으로 지난 시간 힘들었던 상처 치유되고, 영원으로 성화되라! **필문**

사회교리와 정치

정치를 멀리 해야?

“그 사람, 자꾸 말을 바꾸는 걸 보니 너무 정치적이야.” “정치판이란 게 누가 돼도 마찬가지야.” 세간에 들리는 이런 말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정치를 멀리 해야 할 것,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창회나 동호회 같은 작은 모임을 꾸려도 함께 신경을 쓰고 결정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모임에서 회비를 걷으면 그 회비를 왜, 얼마나 걷어야 하는지 뜻을 모아야 하고, 어떻게 회비를 쓸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고,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야 합니다. 모임의 규칙을 정하고 실행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모임의 구성원들이 이런 과정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작은 동창 모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의 회장과 임원을 뽑고 그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따져 묻기도 합니다.

정치적 무관심의 해악

작은 모임도 그렇다면, 국가라는 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세금을 왜, 얼마나 걷는지, 또 그 돈을 제대로 쓰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필요없는 일에 돈을 낭비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혹시 불의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것은 국민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래서 건전한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권장하고 모든 일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게 합니다. 반대로, 독재국가나 부패한 국가일수록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을 부추깁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은 꼭 어떤 정당이나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공동체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최고의 자선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앞가림만 신경 쓰지 말고 공동의 일에 관심을 가져서 억울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교리는 바로 시민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공동의 일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침입니다. 또 공동의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사회교리의 원리들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사회교리의 원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사목단상

“신자들을 야단치지 마십시오.”

박성대 요한 신부 | 2대리구 교구장 대리

어느 본당 신부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신 수녀님께 부탁하신 말씀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자들을 야단치지 마십시오.”라는 한마디 말씀이었다. 필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 그 신부님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참으로 인자하고 착한 목자이시구나!” “이 신부님께서서는 신자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사제이구나!” “이 본당 신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40년간의 사제 생활을 하면서 신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야단을 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하였던가? 심지어는 강론까지도 야단성 강론을 하지 않았던가?

우리 교구의 어느 원로 사제께서 금경축 인사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원로 사제께서 50년 전 사제 서품을 받고 당시 교구장이셨던 서정길 대주교님으로부터 들은 당부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신자들의 보속이 되는 사제가 되지 마십시오. 신자들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대주교님의 말씀을 일생동안 줄곧 마음속에 담고 살아오시면서 신자들에게 마음의 고통과 보속을 주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주시면서 50년간의 사제의 삶을 살아오신 그 원로 사제가 정말 존경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반성을 했다. “내가 그동안

40년의 사제 생활을 하면서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짐(보속)과 고통을 주었던가? 내가 그동안 신자들에게 얼마나 크고 많은 상처를 주었던가? 내가 그동안 신자들의 가슴에 얼마나 크고 많은 대못을 박았던가?”

필자가 사목생활을 하면서 신자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거나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슬프게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것은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내 앞이나 바로 옆 자리에 앉기를 싫어하는 경우였다. 이유는 내가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정말 기분 나쁘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나를 반성하기도 했다. “내가 평소에 신자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저분들이 내 옆이나 앞에서 식사하기를 꺼리면서 도망을 가게 되었을까? 내가 만일 인자하고 착한 목자의 모습을 지녔더라면 그런 슬프고 화나고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착한 목자와는 거리가 멀고 인자한 사제는 아니었다. 야단을 잘 치는 사제였음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성소 주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면서 동료 사제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다. “신자들을 야단치면서 신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늑대’가 아니라 ‘양 냄새나는 착한 목자’가 될 것을!” **필자**

“빛이 생겨라.”

아폴로 계획에 참가한 우주비행사 29명은 모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3명은 개신교 신자였고 6명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름 뿐인 신자가 아니라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폴로 8호에 타고 있던 빌 앤더스와 2명의 우주비행사들은 1968년 12월 24일 달 궤도에서 지구를 찍은 영상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아폴로 8호의 승무원들이 성탄절을 맞아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풀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하시자 빛이 생겼다...’” 천주교 신자였던 빌 앤더스를 시작으로 3명의 비행사들은 약 2분간, 달 표면으로 떠오르는 지구의 모습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나갔습니다. 우주공간을 넘어 온 이 방송은 전파를 탄 콘텐츠 중 역사상 가

장 많은 사람이 수신한 영상이었습니다.

최초로 달에 간 세 명 중 하나였던 마이클 콜린스도 신자였습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에 착륙하는 동안 홀로 달 궤도를 돌던 그에게 지구의 명령실에서 “아담이 창조된 이래 가장 외파로 떨어진 남자가 되었다. 외롭지 않느냐?”고 송신했습니다. 콜린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만족감과 고양감으로 황홀하다.” 2011년 발사된 우주왕복선 엔데버에 탄 3명의 비행사는 모두 천주교 신자였는데, 우주 공간에서 주일을 맞이한 이들에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무선 통신으로 강복을 주시고 이들이 우주선 내에서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그들 중 한 명인 토마스 존스에게 성체 분배권을 수여하셨습니다. **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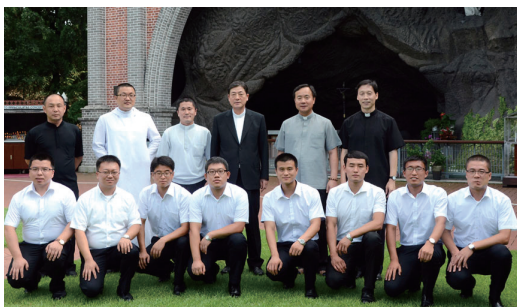
아폴로 8호가 창세기 봉독과 함께 보낸 지구영상

금주의 성인

8월 30일	성 아다옥토(순교자, 304년), 성 판티노(수도원장, 칼라브리아, 10세기경) 성 팜마치오(원로원 의원, 증거자, 410년), 성 펠릭스(신부, 순교자, 304년)
8월 31일	성 라이문도 논나토(추기경, 증거자, 1204~1240년), 성 아이다노(주교, 린디스파른, 651년) 성 바울리노(주교, 트리어, 358년), 성녀 암미아(순교자, 270년)
9월 1일	성 기드온(구약인물, 판관), 성녀 베레나(동정녀, 3세기) 성 여호수아(구약인물, BC 12세기경), 성녀 안나(신약인물, 예언자, 1세기)
9월 2일	성 아그리콜라(주교, 아비뇽, 700년), 성 안토니노(순교자, 파미아, 4세기경)
9월 3일	그레고리오 1세(교황, 교회학자, 540~604년), 성녀 도로테아(동정 순교자, 1세기) 성 마카니시오(주교, 아일랜드, 514년), 성녀 산달라(순교자, 코르도바, 855년) 성 시메온(은수자, 수행자, 517~592년), 성녀 테클라(동정 순교자, 1세기)
9월 4일	성녀 로사(동정녀, 3회원, 비테르보, 1234~1252년), 성 보니파시오 1세(교황, 422년) 성 마리노(부제, 은수자, 산 마리노, 4세기), 성 모세(구약인물, 예언자, 율법학자) 성 울탄(주교, 아르드브라칸, 657년), 성 마르첼로(신부, 순교자, 리옹, 178년)
9월 5일	성 라우렌시오(총대주교, 증거자, 베네치아, 1381~1456년) 복녀 (마티)테레사(설립자, 수녀원장, 콜카타, 1910~1997년)



■ 길림성 천주교신철학원 신학생단 교구장 예방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8월 21일(금) 오후 3시 교구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수도영성체험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길림성 천주교신철학원 6학년 신학생 10명과 지도사제 2명의 예방을 받으셨다.

■ 최홍길(레오) 신부 은퇴미사



대주교님께서는 8월 23일(일) 오전 11시 수성성당에서 봉헌된 최홍길(레오) 신부의 은퇴미사를 공동집전하셨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 <빛>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35주간, 2015. 8. 30~9.5.>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예레30-32장	33-35장	36-39장	40-44장	45-47장	48-49장	50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30-45장]은 희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

- 하느님 백성의 회복 -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흩어져 박해받고 있는 당신 백성을 불러 모으시어 그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 계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 숙부의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 주님께서 바빌론에 빼앗긴 땅 또한 오래지 않아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한다.
- 신명기계 역사관을 재조명 한다. 곧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 할 때 풍성한 축복이 주어진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외모도 중요하지만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2일(수) 11:30 계산성당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9월 5일(토) 11:00 성모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9월 5일(토) 10:00 프란치스코	발달장애자와 가족을 위한 월례미사	9월 6일(일) 16:00 성토마스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9월 5일(토) 11:00 대안성당	—	—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9.6(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9.5(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상아탑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문의: 다사성당, 587-7300

산내 치유 피정

산내 치유 피정: 9.15(화)~16(수)

시니어 피정: 9.22(화)~23(수)

장소: 효령 하늘집 (선착순 10명)

문의: 동천성당, 326-5004

예수성심시녀회 성소 피정

기간: 9.12(토) 15:00~13(일) 15: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우애관

대상: 수도성소 희망 여성

신청: (010)2649-2045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9.4(금) 18:00~6(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새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교육 | 모집

요셉 발 건강회 (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법

일시: 매주 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

문의: 476-7774, www.footfather.com

가톨릭근로자회관 9월 영아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9.1(화) / 월 3만 원

기초: 창세기, 마르코(월, 수 10:10)

중급: 1코린토, 민수기(화, 금 10:10)

저녁: 민수기, 1코린토(화, 목 19:10)

고급: 관덕정 목 10:10 / (010)6506-3303

9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9.12(토) 10:00

장소: 남산동 신학대학

주제: 나날의 삶을 주님과 함께

강사: 이유남(도미니카)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빛 폐제 기도

일시: 9.12(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폐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056-9005

2016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기간: 9.9(수)~15(화), 인터넷 접수

인원: 12개 단과대학,

61개 학부(과) 2,089명

문의: 850-2580, ibsi.cu.ac.kr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ACE대학!

제22기 외식CEO 연구과정 모집

기간: 매주(화) 10:00~17:00 중식제공

개강: 9.1(화) 10:30 (감삼캠퍼스)

대상: 외식식품 경영자, 창업예정자

주최: 대구가톨릭대 보건과학대학원

문의: 850-3177, www.oesikceo.com

제22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모집

개강: 9.14(월) 9:00,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중국현지학습 등

수강료: 100만 원(6개월 과정)

문의: 김영택(바오로), (010)9494-8169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이스라엘, 요르단
(12박 13일)

출발일: 2016년 1월 19일 출발

T. (053)253-3399
조 철 레(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대구그리다스튜디오
설레임으로 다가와
추억을 그리다!

가족촬영 | 우정촬영 | 리마인드촬영 | 웨딩전문촬영
드레스대여 | 텍시도대여 | 메이킹 · 헤어디자인

김 대 현 (프란치스코)
☎ 053)424-7777 | 010-2112-8236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임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참소중한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피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국비지원/무시험/국가자격
장례지도사

(개 강) 10월10일~12월5일(중강)
(주간반) 월~금 10:00~16:30

대가대장례교육원 T.555-4404

Rex Diamond
대구주얼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시청방향 사이
(옛은변 통일주차장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냐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8월 31일(월)은
(故) 최영수(요한) 대주교
선종 6주기입니다.

9월 3일(목)은
(故) 장태식(리노) 신부
선종 3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공의회 학교 기초과정 개설

기간: 9.7~12.7(격주 월) 19:3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마감: 8.30(일) / 회비: 8만 원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10)9544-1838

교구 도보 성지 순례

일시: 9.19(토) 10:00 집결 / 14:00
미사 및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
코스: 선원사 앞 공영주차장~한티성지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7

대구의 미래를 위한 열린 특강

일시: 9월(매주 금) 20:00
장소: 계산성당
권영진 대구시장(1주), 우동기 교육감(2주)
홍의락 의원(3주), 주호영 의원(4주)
문의: 계산성당, 254-2300

대구평화방송 개국19주년 기념 음악회

일시: 9.11(금) 19:30, 수성아트피아
출연: 가톨릭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동우, 웅산, 김동섭, 김은주,
가톨릭연합합창단 / 2만 원
예매: 티켓링크, 251-2610

야산밀 북카페 상영 영화 안내

기간: 2015.9~2016.8 (매주 월) 14:00
첫째주: 프랑스 영화 특선
둘째주: 영화로 보는 세계의 역사
셋째주: 뮤지컬 특선 / 넷째주: 과학
다큐멘터리 특선 / 문의: 622-1900

교육 | 모집

발달장애 부모대학(15주간)

기간: 9.2(매주 수) 19:00~21:00
장소: 성토마스성당 2층(교대역 3번 출구)
대상: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교사, 관심 있으신 분 / 10만 원
문의: 교구 청소년국, (010)4523-0825

28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

기간: 9.4~10.2(매주 금) 5주간
시간: 9:30~14:30 / 회비: 10만 원
장소: 4대리구 포항 오천성당
대상: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
문의: 교구 가정담당, (010)6499-3114

채용 | 안내

논공 성요셉요양병원 간호사 채용

논공 성요셉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인원: 00명
문의: 간호과장, (010)9391-2643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전인병원 9. 10(목) 개원

진료: 양방·한방 통합의료를 통한
면역암치료 / 암성·만성 통증치료
후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부,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대구한국의대의료원
원장: 손기철 신부, 670-6000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원로 사목자와 원로 수도자의 삶을 나누는 휴먼 다큐 '임파라
사랑따라'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 ~ 12시

(주파수 안내: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김천 100.5MHz)

9월 5일(토), 12일(토), 19일(토)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박대종(디오니시오) 수도 사제
9월 26일(토)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정학근(모세) 수도 사제

※ 특집 프로그램은 한국천주교 가두선교단 후원입니다.

“아름다운 건강의 약속”
더 편한 내과와 함께 합니다.

더 편한 내과

부설: 건강검진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70
군청빌딩 3층 (구 달성군청)

원장 윤석진 (아교보) ☎ 053)651-7585

HS 익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노인요양원 SOS프란치스카의집

장기요양급여평가(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

▶ 상담서비스 실시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서비스 실시
▶ 요양보호사 수시모집

053)986-2077~8

사회복지법인 한국SOS어린이마을
- 상임이사: 박상호(사도요한) 신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라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 일: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9시~밤 9시 까지

☎ 260-7777 ☎ 260-7575

☎ 서울정류장·관문시장역(구 달성군청지리)

3대를 이어온 정육고 명가

(주)약령시사람들

◎ 선물용 정육고 제품 ◎ 공진단
◎ 정육고(첼류, 환, 차, 떡, 삼부 등)
◎ 홍삼제품 ※교우 특별 할인

양대성(안토니오) 010-3528-8008
☎ 1644-8807, (053)428-8002
www.약령시사람들.com (약령시장 내)

행복의료기
(행복메디칼)

가정용 의료기, 체온계, 마스크
혈압계, 혈당계, 건강측정기기, 실버용품
병원용품 도·소매, 건강기능식품

대표 이 희 자(루시아)

☎ 053)626-0072

내당네거리 진성두류타운 뒤편(시내배출가능)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이천진료

진료과목: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과
위·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경북대 치과병원과 삼덕네거리 사이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1번출구 앞 2층(사대부고 맞은편)

☎ 053)255-3134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